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09

SEPTEMBER 2016
vol.21
MONTHLY MAGAZINE



표지 작품 '꽃잠'

'꽃잠'은 신랑신부의 첫날밤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이다.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영원히 기억될 가슴 떨리는 처음의 순간. 설레임 가득한 그 처음의 가치는 아름다움이다.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I〉

2015. 한글날 기념 Google 한글로고 제작

2015. 한국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CPI협회)

사.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꽃잠
슬픈 다정다감
있고 난 후
꽃을 피우고
버릴 듯
다버릴 듯
흔들리며
빛을 발하니

이지성 '서이중에서'
새터  이상현춤

당신은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Are you spending
a day
without regrets?

후회 없는
선택이란 있을
수 있을까

인생에서 과연 '후회 없는 선택'이란 것이 있을까.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한 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한 후회나 회한 따위를 안고 산다. 설령 후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이라는 가정은 한 번쯤 해본다.

그녀는 잘 나가는 건축가다. 여성이 성공하기에 쉽지 않은 건축분야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 중이다. 어느 늦은 시간,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다. 까다로운 고객과의 미팅을 무사히 마치고 귀가 중이라고 했다.

저녁을 걸러 자신의 차 안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데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이 이런 말을 걸더란다. '열심히 살았던 오늘 하루, 후회는 없는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끼니도 거른 채 꿈을 향해 전력질주를 했다는 그녀는, 오늘 하루는 후회가 없는데 정작 내일 이 세상을 떠다고 가정한다면 엄청 후회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꿈을 위한 하루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하루 사이에서 그녀는 갈팡질팡 중이었다. 정답은 없다. 후회 없는 하루가 모여 후회 없는 인생이 되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으니.

오늘 하루는 후회 없이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후회가 되더라는 '웃픈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 그것은 오늘이 현재가 아닌 과거가 되어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걸러 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믿음

예전에 방송했었던 MBC '세바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란 퀴즈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각 세대별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코너였는데, 10대부터 50대까지의 남성이 가장 후회하는 일은 한결같이 '공부 좀 할 걸'이었다. 그런데 50대에서 70대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은 '돈 좀 모을 걸'이라는 것이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내내 돈을 모으기는 하지만 50대부터 은퇴하는 시점에 '돈 좀 모을 걸'이라고 후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돈을 버느라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이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공부만 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좀 더 재미있게 놀 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이들은 가장 맛있는 사탕을 손에 넣었다고 좋아하는 순간, 갖지 못한 사탕에 대해서도 시선을 던진다. 혹시 '저 사탕이 더 맛있는 것이 아닐까'하고 말이다.

맛보지 않은 이상 어떤 사탕이 맛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각자마다 선호하는 맛이 달라 누구에게는 맛있는 사탕이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사탕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는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택에 대한 믿음이다. 현재 선택한 것이 가장 옳고,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확고한 믿음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겁게 살고 있는가

시간을 돌린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영화 '어바웃 타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주인공의 이야기다. 그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사랑을 찾는데 사용한다. 찌질 하던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고, 사랑하는 여자와 마침내 결혼에 골인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신이 과거를 되돌릴 때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김을 알게 된다.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완벽히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는 점차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후회가 남지 않게 순간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어떤 선택이든 후회라는 것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이 아닌, '후회 하지 않는 삶'이다. 후회 하지 않는 삶은 자신의 선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수많은 선택의 연속으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저 사랑하는 것뿐이다. 모든 선택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장 행복해야 한다. 그 어떤 것에도 한 눈 팔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순간을 살아내야 한다.

올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사람들은 더운 여름을 원망했겠지만, 여름은 그 본연의 모습답게 최선을 다해 뜨거웠으니 후회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여름이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겁게 살고 있냐고, 후회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냐고.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09월호 vol.21
MONTHLY MAGAZINE. SEPTEMBER 2016



08 행복을 주는 사람 | 정대웅 인생기록연구소 소장

스스로 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삶은 단단하다. 천천히, 단단하게 성장하는 그들의 점진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정대웅 인생기록연구소 소장은 대학 재수 시절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일기쓰기로 '점진적 변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일기쓰기로 생(生)의 찰나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온 그만의 우직한 삶의 방식은 행복과 맞닿아 있다.



I4 행복메신저 | 이현집 하나금융투자 덕수궁지점 과장

이현집 하나금융투자 행복파트너는 "내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손님 의 성과를 우선시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내 수익만을 생각한다면 손님과 신뢰를 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관계야말로 그의 가장 큰 자산이다. "신뢰는 설사 기대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30 연금 포커스 | 국민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노후준비

노후소득 준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는데다 제도 자체의 복잡성으로 국민연금 상품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기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효율적인 국민연금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40 부동산 이슈 | 8.25 가계부채 대책의 내용과 영향

정부는 지난 8월 25일 계속 늘어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는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관리, 서민·취약 계층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OPENING



02 행복을 위한 질문
당신은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INTERVIEW



08 행복을 주는 사람
"한평생 일기쓰기가 가져온 행복"

INFO GRAPHY



I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노인장기요양 보험 이용

행복미래설계



I4 행복메신저
"멀리 내다보고 진심을 다할 때 탄탄한 신뢰 쌓을 수 있죠"

I6 H씨의 행복설계
자산 포트폴리오의 조정과 더불어 현재 및 노후생활비의 축소가 불가피

20 지식 플라자-법률
성년후견제도의 효율적 활용법

22 지식 플라자-상품소개
자산배분형 퇴직연금 펀드

24 Do! Dream
평생 공부한다! '컬처랩비족'

26 Anti aging
지금까지 웃음은 잊어라
몸이 건강해지는 행복한 운동 '웃음'

28 Alone, together
큐레이션!에 길을 묻다

연금이슈포커스



30 연금 포커스
국민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노후준비

경제 TREND



36 경제 이슈
일상화된 전망치
하향조정의 시사점

40 부동산 이슈
8.25 가계부채 대책의
내용과 영향

GLOBAL



44 지구인 이야기
외모가 뭐 에너지 더하는
스페인 시니어들

FUTURE



46 은퇴, 버킷리스트
지금
시인을 꿈 꾸다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09월호 vol.21 (통권 21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리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판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행일 2016년 09월 8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박지홍 연구원, KEB하나은행 | 이종면 팀장, 최호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 이정철 부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토크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정대용 • 인생기록연구소 소장

“한평생 일기쓰기가 가져온 행복”

스스로 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삶은 단단하다. 천천히, 단단하게 성장하는 그들의 점진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정대용 인생기록연구소 소장은 대학 재수 시절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일기쓰기로 ‘점진적 변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평범한 일상에서 군대 생활까지 36년 동안 써 온 일기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 등재되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일기쓰기로 생(生)의 활나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온 그만의 우직한 삶의 방식은 행복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지금, 목표가 곧 인생의 목적이고 꿈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다. 행복에 목말라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정대용 인생기록연구소 소장의 ‘한평생 일기’는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느끼며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아무리 크고 비싼 집과 재물을 갖고 있고, 권력과 명예를 갖고 살아간다고 해도 오늘의 일상이 주는 무언가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한 송이 꽃과 바람소리, 물소리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는 광재우 시인의 말처럼 일기쓰기로 하루하루 삶을 음미하며 살아온 정대용 소장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일기쓰기의 강력한 힘

정대용 소장은 지난해 예비역 육군 대령으로 명예 전역했다. 덕분에 그가 써온 일기장의 상당부분이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다. 학사 장교를 시작으로 직업 군인의 길에 들어선 그는 군 생활, 훈련 생활, 군인 가족의 생활 등 소소한 일상의 기록까지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다. “군에서 생긴 일상적인 일들부터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사고들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 기록에는 군 생활의 애환에서부터 세상에 공개되면 곤란했던 군 사고의 전후 사정까지 소상히 기록되어 있죠.” 군인들의 삶, 전술적 데이터 등이 녹아있는 일기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될 만큼 역사로서의 가치가 크다.

“사진은 한 장으로 끝나지만 기록은 한 줄만 있어도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지금도 예전의 일기장을 들춰볼 때면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해요.”

일기쓰기가 주는 3가지 행복

정 소장의 일기쓰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 시절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불교 경전에 심취해 인생의 심오한 의미를 사색하는 것을 즐겨했었죠. 사색과 함께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일기쓰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쓰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쌓이자 점점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일기를 시작하지 3개월 정도 되니 오히려 안 쓰는 날은 뭔가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일기 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메모지를 활용했어요. 갖고 있던 종이에 몇 줄을 메모해 주머니에 구겨 넣고 나중에 일기장에 정리하곤 했죠. 다음날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메모를 모아서 밀린 일기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일기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과연 멈출 수 없었던 일기쓰기의 매력은 무엇일까.

“일기가 주는 유익은 3찰(三察)로 요약할 수 있어요. 3찰이란 성찰, 통찰, 관찰의 줄임말이죠. 일기를 통해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성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관찰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사회적 관계 폭을 넓혀

그의 한 평생 일기쓰기는 은퇴 후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일기를 통해 군대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상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강의, 모임 등으로 부쩍 분주해 졌다. 이러한 액티브한 활동이 가능한데에는 그만의 은퇴전략도 한 몫했다.

“사실 은퇴 1~2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먼저 주거 문제, 은퇴 후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를 우선적으로 해결했죠. 또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에 등록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에도 비중을 뒀어요.”

그의 명함에는 ‘인생기록연구소 소장’, ‘이중명리더십사관학교 이사’ 라는 두 가지 직함이 있다. “은퇴할 때 저를 포함한 육군, 해군, 공군 출신 9명의 지인들과 함께 ‘리더십 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군에서는 전역 전 ‘직업 훈련원’을 거치게 되는 데 그곳에서 만난 이들과 학교를 만든 거죠. 이중명 대표(국회의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재들이 리더십 사관학교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죠.”

최근에는 개인 브랜드인 ‘인생기록연구소’를 만들어 강연 활동은 물론 책 출판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도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동안 맺은 사람들과의 인연 덕택이다.

“1인1책 김준호 대표를 통해 고정욱 작가를 알게 됐죠.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인생기록연

구소라는 개인브랜드도 만들고, 책도 준비 할 수 있었어요.”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뛰어나가고 있는 정 소장은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통을 강조한다. “은퇴 후에 사람들과의 인연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전원생활을 위해 시골로 내려간 사람들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적응하며 살아야 해요. 도시에서의 은퇴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은 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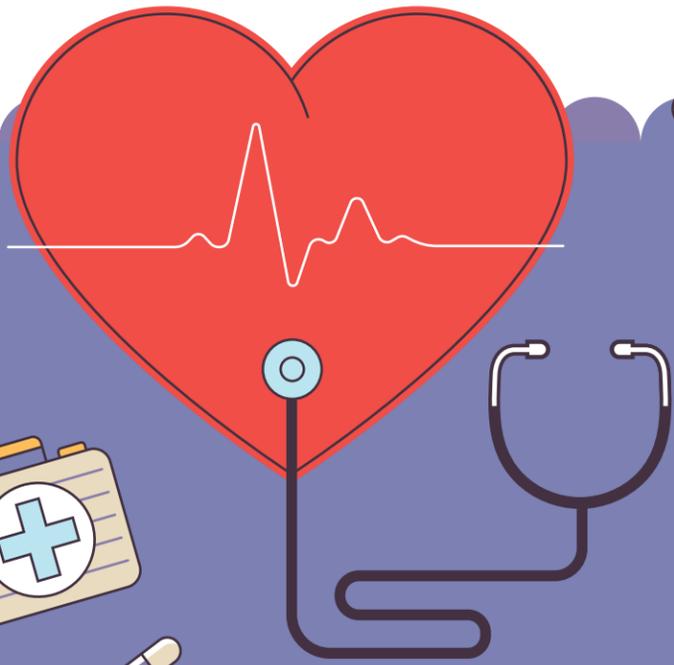
그 관계의 중심에는 가족관계가 있으며, 특히 원활한 부부관계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든 것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관계에서 부부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소한 근심, 걱정 내려놓으면 행복 다가와

“최근 저에게 행복을 주는 일은 매주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나름대로는 열과 성의를 다해 그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남은 삶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근심이 생기죠.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좋아요. 뭔가를 이룩해 소유하기보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둔다면 저절로 사소한 근심과 걱정이 없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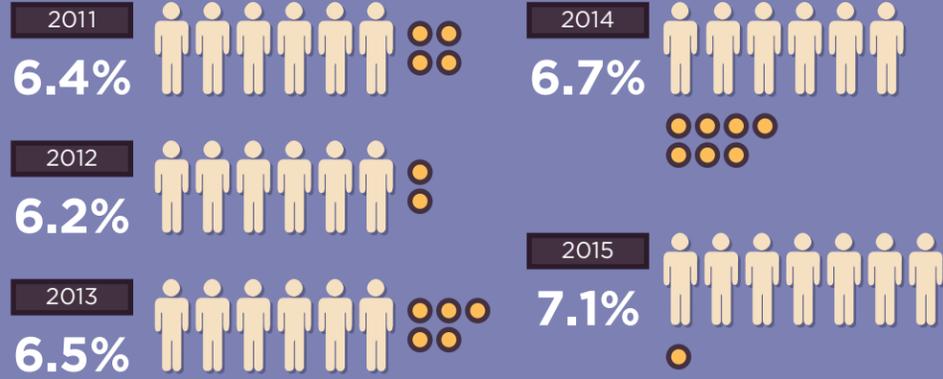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 보험 이용

노인장기요양복지 시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인구대비 7.1%로 낮은 수준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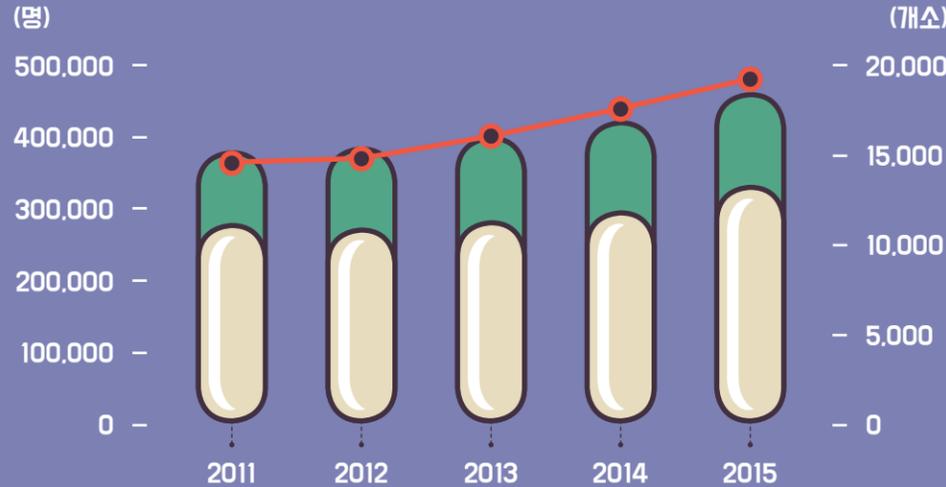
주 :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급자 비율
자료 : 국민건강보험



시설 및 이용 수급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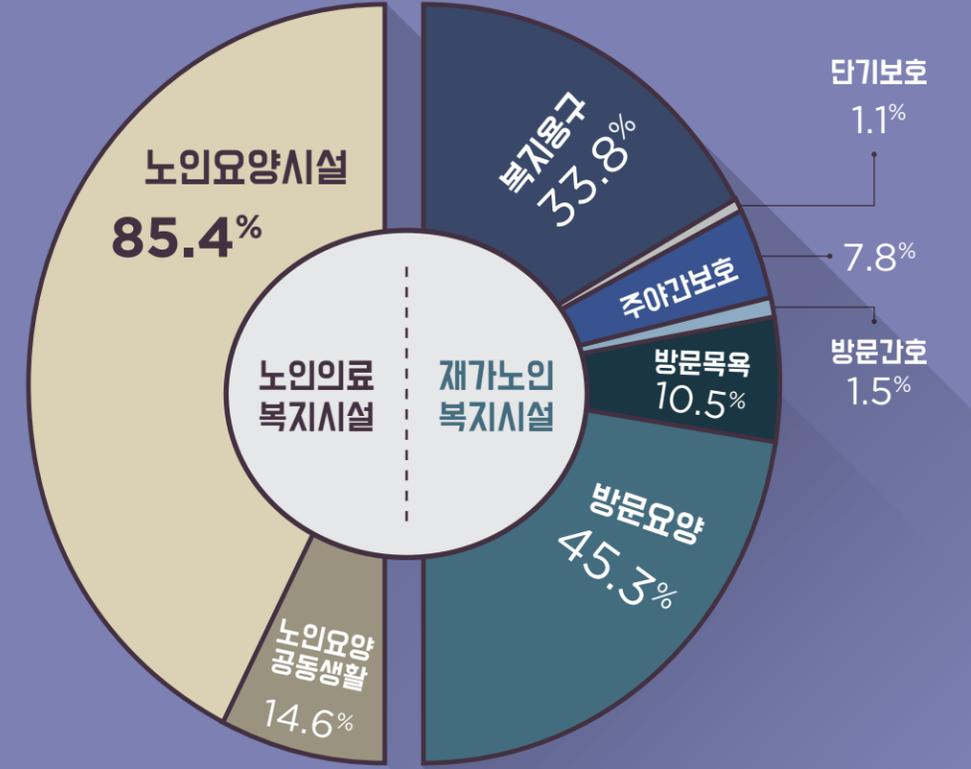
자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의료시설
재가의료시설
총인원(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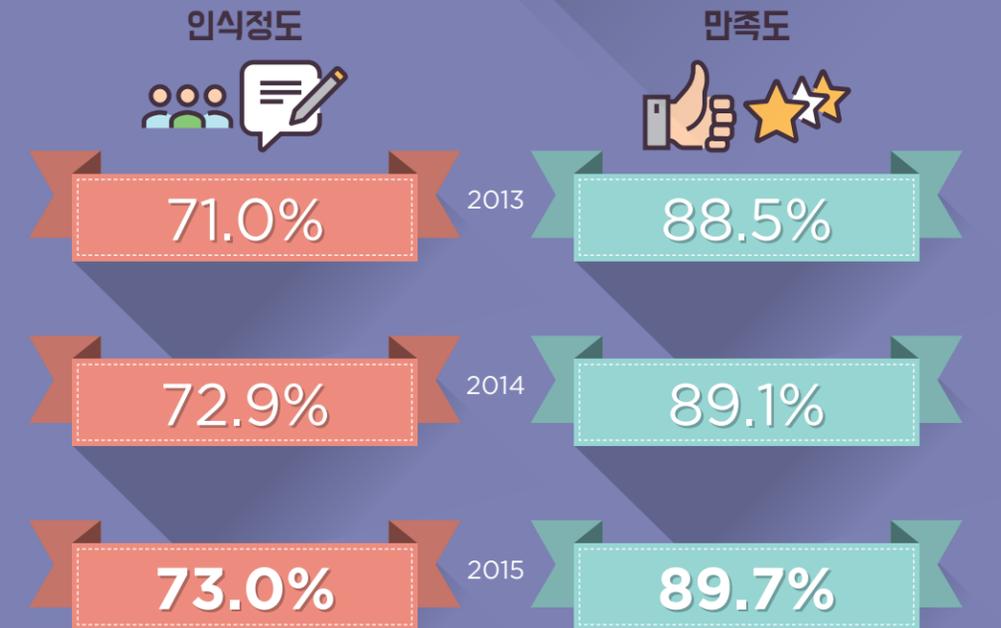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 복지시설별 이용 비중

주 : 2015년 기준
자료 : 국민건강보험



제도 인식 및 만족

주 : 인식정도는 일반국민,
만족정도는 수급자의 보호자
대상 조사
자료 : 국민건강보험



“멀리 내다보고 진심을 다할 때 탄탄한 신뢰 쌓을 수 있죠.”

이현집 행복파트너
하나금융투자 덕수궁지점 과장



이현집 하나금융투자 행복파트너는 “내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손님의 성과를 우선시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내 수익만을 생각한다면 손님과 신뢰를 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관계야말로 그의 가장 큰 자산이다.

“신뢰는 설사 기대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이현집 과장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다. 그 시각에 일어나 출근할 때까지 그날그날 해외 시장의 이벤트와 장마감 상황, 언론사 경제뉴스를 훑어보며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어 오늘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 빌딩을 세운 후 장 시작 전 손님들에게 상황을 요약해 문자나 SNS로 제공한다. 근무시간에는 하루 종일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지만, 장 마감 후에는 주로 손님과의 저녁식사 미팅이 이어진다.

“무언가 하나라도 구하려면 직접 손님을 만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와인이나 책토론 모임 등 개인적인 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휴일에는 온전히 쉬는 시간을 통해 재충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집 과장은 2010년 하나금융투자에 입사하기 전까지 금융컨설팅사에서 재무컨설팅과 강의, 세미나 등을 진행했고, 케이블TV에서 1년 동안 재무컨설팅 프로그램의 전문가로 고정 출연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과거 증권 분야의 경험은 부족했지만 과거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얻은 장점을 부각해 계약을 맺고 한분 한분 손님을 늘려왔습니다. 저는 현재 덕수궁 지점의 PB로 근무하고 있지만 업무는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에 있어서 나만의 철학이 있다면 ‘금융분야에서 멀티플레이어를 추구하되 효율성을 높이자’입니다. 앞으로 세무사 자격증에 도전해 좀 더 전문적인 PB로서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경찰관인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덕분에 경찰서에서 자산 관리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었는데요. 그게 인연이 되어, 다른 경찰서에서도 ‘재무설계, 10년 뒤 부자 되기, 자산관리’ 등을 주제로 꾸준히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손님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은 저인데도, 저로 인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며 명절이면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TIP

1. 안정적인 연금구조를 위해 노후설계는 필수

고령화 시대에 가장 훌륭한 은퇴는 가장 늦게 은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이나 재취업 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비와 의료비, 여유활동비까지 감안한 연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활용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 임대 수익과 주택연금까지 감안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은퇴 자산을 키워라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 적절한 기대수익을 목표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한 주식형 투자 없이는 자산이 늘어 날 수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일부는 장기투자자나 주식형투자를 적절히 활용해 은퇴자산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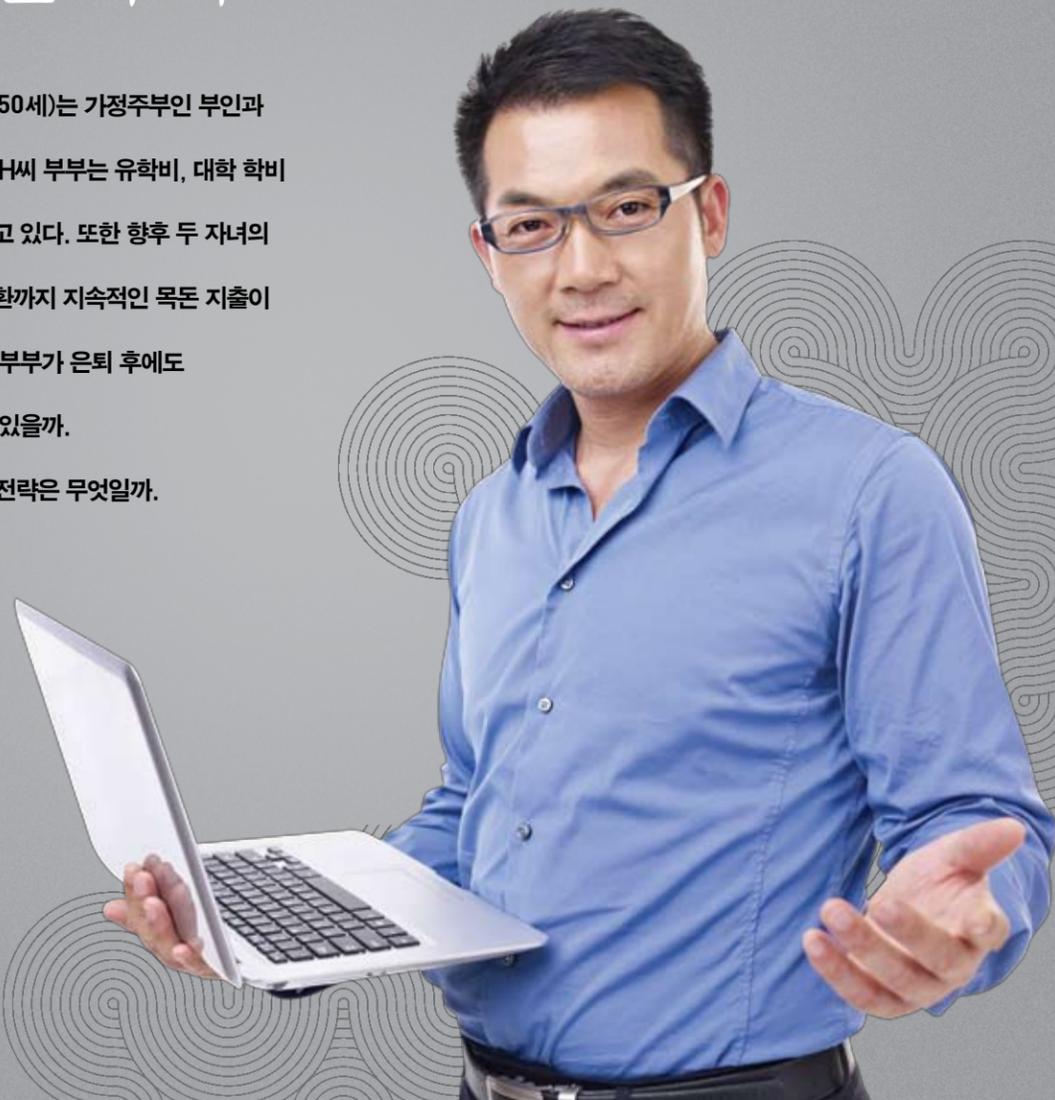
3. 믿을만한 PB를 곁에 두어라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는 매크로 분석과 이에 따른 손님의 투자성향과 투자기간, 목표수익률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PB를 곁에 두고 적극적으로 자산관리를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조정과 더불어 현재 및 노후 생활비 축소가 불가피

IT기업에 다니고 있는 H씨(만 50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다. 특히 H씨 부부는 유학비, 대학 학비 등 자녀 교육비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향후 두 자녀의 결혼비용, 담보대출의 원금 상환까지 지속적인 목돈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과연 이들 부부가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 H씨를 위한 현명한 노후 준비 전략은 무엇일까.



지속적인 목돈 지출 발생으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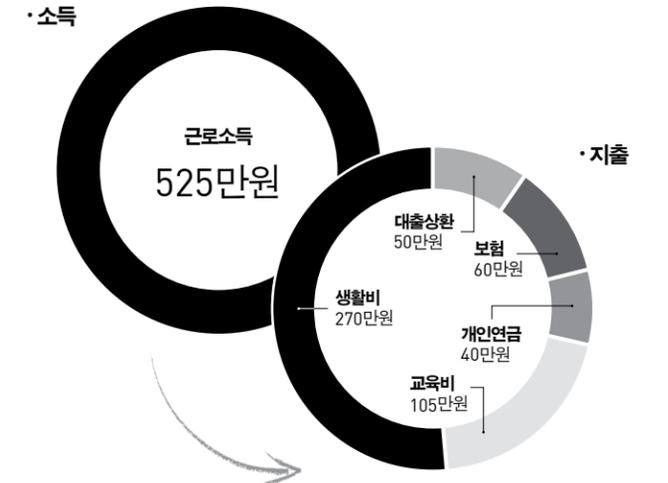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상존

IT기업에 재직 중인 H씨(만 50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대학교 3학년생 자녀, 고등학교 1학년생 자녀 등 2명이 있다. 현재 H씨는 4.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는 정기예금 1억원, 펀드 8,000만원이 있다. 부채로는 보유중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은 2억원의 담보대출이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월 525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반면 지출은 생활비 270만원, 교육비 105만원, 개인연금 40만원, 보험 60만원, 대출상환 50만원이 있다.

H씨 부부는 자녀 교육으로 첫째 자녀는 유학(5,000만원 예상)을, 둘째 자녀는 대학 졸업까지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향후 두 자녀의 결혼비용(1인당 1억원 예상)에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담보대출의 원금 상환까지 감안하면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이 가능할지 고민인 상황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 | |
|-------|------|--------|
| · 자산 | 아파트 | 4.5억 원 |
| | 정기예금 | 1.0억 원 |
| | 펀드 | 0.8억 원 |
| | 연금자산 | 0.4억 원 |
| | · 부채 | 담보대출 |
| · 순자산 | | 4.7억 원 |



60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400만원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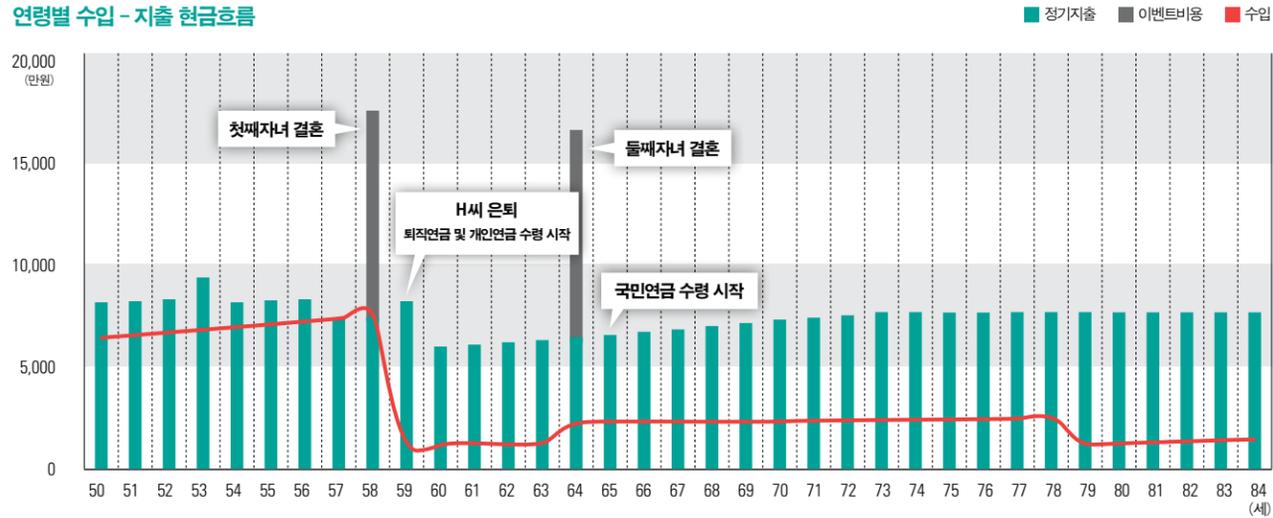
H씨는 은퇴시기를 60세(만 59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H씨 부부는 교육비를 포함해 생활비로 375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현재 수준인 4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H씨 부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매월 약 6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60세부터 20년간 각각 월 50만원, 30만원씩 수령할 계획이다.

H씨 부부의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¹⁾을 살펴보면,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에 비해 지출

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은퇴 전인 50세부터 58세까지도 두 자녀의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첫째 자녀 결혼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은퇴 후 또한 연금수급에 비해 지출이 커서 은퇴 전보다 더 많은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보면 전 구간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며, 약 20.1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부동산자산의 활용, 지출 축소, 금융자산의 적극적인 운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물가상승률은 2.0%를 가정하고 수입은 소득에 연금 수금액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해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주택연금 활용 및 지출 축소 등이 필요

앞서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살펴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전부터 지속적인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아무리 금융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는 H씨가 원하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거나 지출을 조정해 노후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이자 비용 절약을 위해 기존에 받았던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이자만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매월 190만원 정도의 원리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보유 자산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억원의 담보대출에서 1.8억원을 기존 금융자산으로 상환하며, 나머지 0.2억원에 대해서는 매월 갚아나가는 것으로 가정²⁾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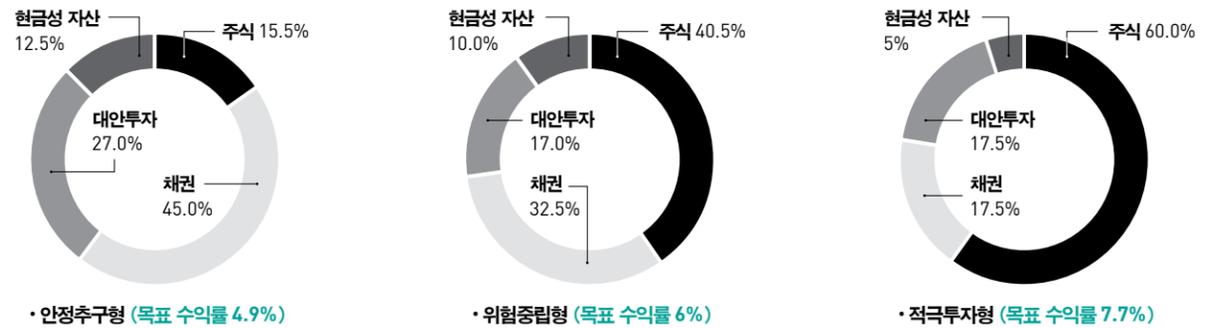
다음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한다. 주택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후 정산 과정에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을 경우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씨의 경우 은퇴 전에도 지속적인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활한 현금흐름을 위해서 60세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

재 보유하고 있는 4.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60세부터 종신지급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현재 기준 매월 10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 지출 및 은퇴 후 생활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활비로 27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H씨가 원하는 노후 생활비는 400만원이다. 앞서 자산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주택연금을 활용하더라도 생활비를 조정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운용만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이다. 따라서 대안으로 지출 축소를 통한 추가적인 금융자산의 확보를 고려해봐야 한다.

우선 다소 어렵더라도 현재 생활비를 2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축소하고, 노후 생활비 또한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액한다. 이 경우 금융자산의 요구수익률은 9.02%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9.02%의 수익률은 적극투자형의 수익률인 7.7%보다도 높다. 따라서 자녀들의 예상 결혼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1억원에서 0.85~0.95억원 수준으로 줄이면 위험중립형(6%)과 적극투자형(7.7%)의 목표수익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변화 없이 금융자산만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한다고 가정하면 달성 불가능한 수익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에 제시한 방안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씨의 경우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

서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현재 지출 축소분을 메우는 전략도 유효하다. 다만, 최근 미(美) 연준이 기준금리를 하반기 내에 추가적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적극적인 투자는 다소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을 판단해 투자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월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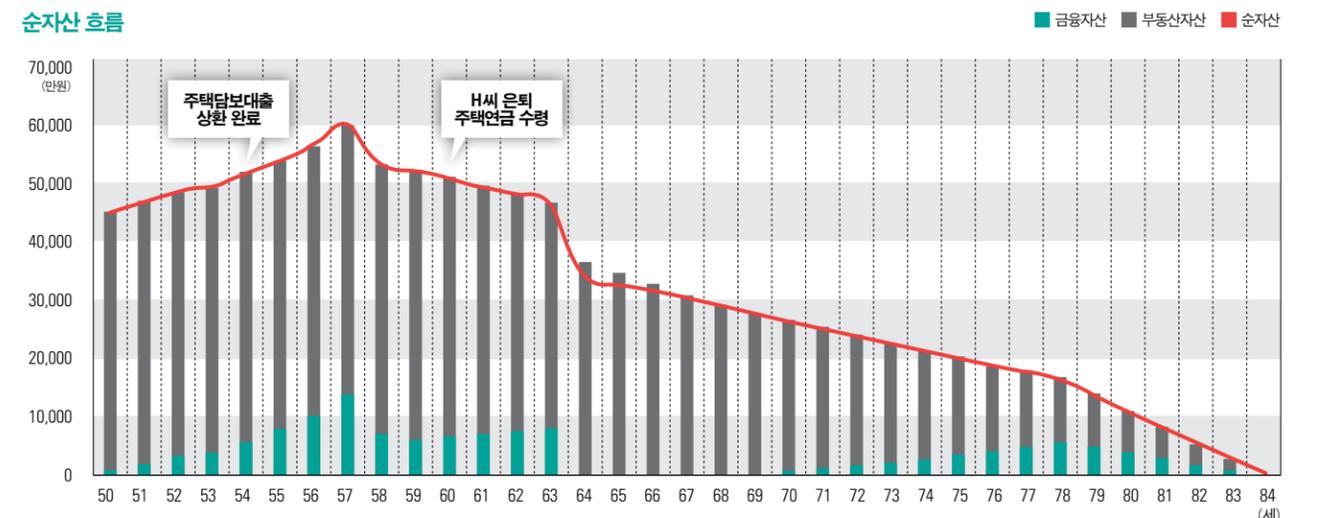
미리 미리 은퇴설계를 통한

노후준비 진단을 하자

H씨의 경우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교육 및 결혼,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추가적인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이자 납입을 막기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추가적인 금융자산 확보를 위해 기존 생활비 및 노후 예상 생활비 축소가 요구되었다.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더라도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하기 보다는 지출로 다 소비할 경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도 H씨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은퇴 이후에는 기존의 현금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는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은퇴 설계를 해보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을 찾아보자. 또한, 은퇴 설계는 한번 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변동할 수 있는 인생 계획에 맞춰 은퇴 설계 또한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순자산 흐름



1) 향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을 가정



성년후견제도의 효율적 활용법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다.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재산 외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이 된다.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후 3년이 지났다. 은행의 법률 상담센터에도 성년후견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에 걸린 A의 보호자가 A를 보살피기 위한 수단 또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회복이 힘든 B의 자녀가 B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노후를 대비하고 싶은 경우에도 후견계약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한 각종 후견제도의 활용 TIP을 알아본다

—

성년후견인이 꼭 한 명일 필요는 없으며, 법인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가능

—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의 후견 행위가 올바르게 이뤄지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음

—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자신 및 배우자의 노후를 대비한 맞춤형 관리가 가능

Q1.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정신적 제약이 없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처럼 치매에 걸린 A나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회복이 힘든 B의 경우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Q2. 성년후견인은 꼭 한 명이어야 하나?

성년후견인이 꼭 한 명일 필요는 없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법원은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미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추가로 선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는 아들이, 신상관리는 딸이 할 수 있다. 또한 법인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즉, 재산관리는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하고, 신상관리는 실버타운 등 복지법인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법원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Q3. 성년후견감독인이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의 행위를 감독한다. 현실적으로 법원이 모든 후견인의 행위를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Q4.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치매에 걸리지 않은 경우라도 노후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후견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후견계약은 추후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맡아 줄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인데, 성년후견제도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후견계약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남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원하는 경우 장남과 후견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후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돼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자.

Q5.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는 없나?

자신과 배우자 노후대비를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기는 신탁계약을 통해 자신이 수익자가 되고,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수익자로 추가한다면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치매에 걸린 후 자녀들이 자신의 노후대비자산을 처분할까봐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탁을 이용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Q6. 상속 발생 후 자녀의 부양이 걱정된다면?

상속 발생 후 자녀의 부양이 걱정된다면 유언신탁제도를 활용해보자. 유언신탁은 유언과 신탁의 장점을 합친 제도이다. 유언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자녀들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신의 상속 발생 시 자녀의 부양이 걱정되기 마련인데, 이 때에는 자신의 사망 시부터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생활비를 부양하고, 이후 '자녀가 결혼하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신탁을 한다면 자녀의 부양과 상속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자산배분형 퇴직연금 펀드

퇴직연금은 최근 5년 연평균 3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5년말 126.4조원의 적립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외형성장에 비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자들의 자산운용관련 지식 및 관심부족, 운용사들의 보수적 운용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기대만큼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확정기여(DC)형 및 IRP의 경우 가입자들이 투자상품의 선정부터 사후관리 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전문지식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관계로 관리를 소홀하기 일쑤다. 따라서 최근 증권사들은 가입자들의 이러한 니즈를 고려해 자산배분부터 리밸런싱 등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퇴직연금 전용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자산배분형 퇴직연금펀드는 기존펀드와는 달리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과 증권사의 포트폴리오 자문능력이 결합되어 연금자산을 시장의 국면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운용되는 상품이다. 증권사들은 글로벌 시장, 경제동향, 포트폴리오구성 등을 자문하게 된다. 현재 하나금융투의 미래에셋하나1Q 연금펀드, NH투자증권의 미래에셋100세시대QV 퇴직연금 상품 등이 출시되어 있다. 또한 자산배분형 퇴직연금펀드는 재간접펀드의 형태로 운용능력이 검증된 성과가 양호한 기존 펀드에 분산투자해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게 된다. 펀드의 투자자산은 국내의 주식펀드, 채권펀드, 대안투자펀드, 상장 ETF 등이 편입되어 구성되고, 모펀드는 자산클래스별 설정된 투자한도 내에서 투자가 이뤄진다. 반면 투자에 따르는 위험은 재간접펀드인 관계로 타 집합투자의 만기기간 도래 등에 따른 불가피한 환매, 펀드의 평가 및 펀드기준가 산정 시 일반펀드에 비해 하루가 늦게 이뤄지는 단점 등이 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IRP 등의 퇴직연금을 펀드를 통하여 투자하고자하나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투자자산의 운용지시 등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힘든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자산배분형 퇴직연금펀드를 통한 적립자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자신의 위험성향, 펀드의 자산구성, 수수료 수준, 펀드 운용사 및 자문사의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자산배분형 퇴직연금 펀드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자산운용 | - 시장국면에 따라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유형 및 펀드에 투자 - 체계적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리밸런싱으로 사후관리 및 편리성 제공 - 증권사의 자문과 운용사의 자산운용 역량을 결합한 시너지 제고 |
| 포트폴리오 구성 | - 주식펀드, 채권펀드, 대안투자펀드, 국내외상장 ETF |
| 모펀드 투자 전략 및 한도 | -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주식형은 90%, 채권형은 50% 이하 투자 |
| 위험관리 | - 위험관리는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리되지만 재간접펀드인 관계로 재간접투자 위험이 존재 |
| 기준가 적용 | - 투자자산평가 및 펀드기준가가 일반펀드에 비해 하루가 늦음 |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행복 knowhow

미래에셋 하나1Q 연금 펀드

(주식혼합-재간접형)



(연금저축계좌 전용)



(개인연금저축 전용)

하나의 펀드로 전세계에서 선별된 유망한 펀드에 투자하는 **하나1Q 펀드!**

- 체계적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 리밸런싱으로 액티브한 시장대응을 합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재간접펀드 운용노하우와 **하나금융투자**의 포트폴리오 운용능력으로 연금투자에 적절한 상품입니다.

| 운용회사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 판매회사

하나금융투자



평생 공부한다! '컬처랩비족'

최근 시니어들의 배움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취미 생활에서부터 인문학 연구까지 다양한 주제에 걸쳐
만학도의 꿈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급기야 '컬처랩비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중계동에 사는 한향수 씨. 칠순이 훌쩍 넘은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박물관으로 향한다.
인문강좌를 듣기 위해서다. 지적 호기심이 많은 그녀는 매번 새로운 주제의 강의를 들으며
배움의 희열을 즐긴다.

컬처랩비족. 평생공부, 학습 등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를 일컫는 말이다. 과거
부양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한계를 넘어 이제 파워 시니어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인생에 활기를 더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배움에 투자하는 시니어들이
점차 늘고 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컬처랩비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지자체나 문화센터
등에서도 프로그램을 속속 개설하고 있다. 문화 강좌, 예술 강좌, 인문 강좌, 외국어 등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자신의 삶을 글로 남기고 싶은 이들에게는 글쓰기 특강 같은
특화된 강좌가 인기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큰 돈 들이지 않고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자.

no. _____
date. _____

다양한 역사, 인문, 문화 강좌

국립중앙 박물관

Tel. 02-2077-9295, 9300

● 다양한 역사, 인문, 문화 강좌

박물관역사문화교실 - 상설 전시와 연계한 한국의 역사, 문화 이야기 (기획전, 특별전,
테마전 관련 강의 포함).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오는 11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전남대학교 박물관

Tel. 062-530-3585

열두 가지 색으로 톡하다 - 다섯 명의 교수와 일곱 명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음악과
관련된 강좌다. 강좌가 끝난 후에는 강의 내용과 부합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오는 9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일반인은 11만원, 시니어는 9만원이다.

교하 도서관

Tel. 031-940-5173

● 시니어를 위한 자서전 워크숍

파주시 교하도서관은 머리카락이 희끗한 중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별하고 독특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사진 찍기가 결합된
워크숍 '노닥노닥 두런두런'은 온전한 내 이야기를 글로 남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오는 10월 20일까지 진행된다.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51-6791~5

● 외국어 강좌에서부터 시니어진로지도사까지

9월에 개강하는 부경대 평생교육원의 2학기강좌는 무려 126개로, 음악교육과정 24개
강좌를 비롯 △ 산학협동교육과정 2개 △ 외국어교육과정 1개 △ 교양 및 생활교육과정
53개 △ 건강교육과정 12개 △ 부동산 재테크교육과정 4개 △ 전문교육과정에 30개
강좌가 열린다. 전문교육과정에는 미술·문학·색채 심리상담사, 한자학습지도사,
파워스피치, 선천재능검사 상담사, 그림카드힐링상담사, 원예치료사, 헤어스케치,
커피바리스타, 죽음교육지도사, 노인미술지도사, 캘리그래피디자인, 화훼장식, 숲해설,
약용식물해설, 두뇌역량강화, 시니어진로지도사, 불교문화유산 해설사 등이 개설된다.
부경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수강신청 또는 전화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선착순 모집이다.

지금까지의 웃음은 잊어라

몸이 건강해지는 행복한 운동 '웃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얘기라고 한다. 웃음이 주는 놀라운 효과를 우리도 경험해보자.

문제 하나. 즉각적으로 3년 젊어 보이는 비결은? 바로 웃는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막그플랑크 연구소팀은 웃는 얼굴로 행복한 기분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같은 또래의 근엄한 사람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외모가 어려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웃는 얼굴이 젊어 보이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취제일뿐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줘 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바탕 웃음으로 두 마리 토끼 잡기

13세기 초, 일부 외과의사들은 수술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웃음을 이용했고, 20세기에 제임스 윌시라는 미국 의사는 내장기관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웃음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학계에서 웃음은 꾸준히 연구 대상이 돼 왔다. 미국의 새터데이 리뷰지의 편집장이었던 노만 커즌스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질병에 걸렸다. 그는 굳어지는 뼈와 근육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난 후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실제로 15분 웃으면 2시간 동안 통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자신의 몸을 통해 발견하게 됐다. 이후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 부속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웃음치료의 효과를 연구했고, 웃음의 의학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 번 크게 웃는 것은 5분 동안 에어로빅을 한 것과 같은 칼로리 소모가 이뤄진다고 한다. 실제로 과거 TV프로그램인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보러온 관객 20명을 섭외해 녹화 전과 녹화 후의 몸무게를 재본 결과, 20명의 몸무게는 녹화가 끝난 시점에 평균 0.5kg 내외로 빠졌다고 한다. 실제로 웃음 다이어트로 체중감량에 성공한 사례들도 많다. 이처럼 건강과 젊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웃음, 어떻게 웃어야 할까. 쉽게 따라하는 웃음 트레이닝을 통해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보자.

쉽게 따라하는 웃음 노하우

- 01 권위의식을 버리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와 간호사들은 매주 목요일 회의가 끝나면 웃음 모임을 연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의료진 모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웃으며 환자를 대하게 된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딱딱한 권위 의식을 버리고 융통성 있는 웃음을 짓자. 웃음이 당신을 훨씬 친화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 02 웃는 인상으로 바꾸자.**
나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다. 우선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자. 거울 속 내 얼굴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고,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보자. 자꾸 웃는 표정을 지어서 즐거운 표정 근육을 만들어보자.
- 03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챙겨보자.**
요즘 개그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은 정말 재미있다. 개그 프로그램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챙겨보자. 가끔은 머리를 비우고 마음껏 웃는 바보가 돼도 좋다. 우리의 머릿속도 때로는 웃음으로 청소해주는 게 필요하다.
- 04 웃음 도구를 만들자.**
우리가 자신을 향해 웃음으로써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웃음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첫째, 집 안의 바닥에 색깔이 있는 띠를 붙여 '웃음선'이라고 이름 짓고, 이 웃음선을 넘을 때마다 반드시 웃어야 하는 규칙을 세워보자. 웃을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둘째,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진을 걸어놓자. 아이의 어릴 적 장난스럽고 귀여운 사진이나 부부가 즐거웠던 여행의 사진 등 보기만 해도 그 때가 떠올라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진을 곳곳에 둔다면 좀 더 자주 웃게 될 것이다.
- 03 어린 아이가 되자.**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잘 웃는다. 당신의 웃음을 가로막는 체면을 버리자. 또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식의 고지식함보다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을 가져보자. 또 절대로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해보자. 하지만 한 번도 안타본 버스를 타본다든지,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먹기 등 자신이 몰랐던 세계를 경험해보는 일은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기르게 해준다.

(참고자료: 웃음에 대한 특별보고서 (SBS PD 장경수, 이동규 저/랜덤하우스))

tip. 가짜 웃음도 효과가 있을까?

'볼펜 물기 실험'이라는 게 있다. 볼펜 끝 부분을 입술로 물어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한 그룹과 볼펜 가운데 부분을 치아로 길게 물어 입꼬리가 위를 향하게 한 그룹 중 치아로 볼펜을 문 학생들이 만화를 더 재미있게 봤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실험 결과, 일부러라도 입꼬리를 올렸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도 즐거움이나 재미를 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러라도 미소를 지으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겨냥해 최근 콘텐츠를 골라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큐레이션!에 길을 묻다



현대인들이 머뭇거리고 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읽을지 사소한 결정을 앞두고 결정 장애에 빠진 현대판 햄릿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족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꼭 집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러한 심리 수요가 반영된 신종 서비스가 바로 큐레이션 서비스다. 콘텐츠, 패션, 푸드 등 분야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용자의 입맛에 따라, 큐레이션 서비스

큐레이션(Curation)은 원래 많은 화가와 작품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Curator)에서 시작된 말. 최근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별해주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이제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생활 밀착형서비스로 점점 더 범위 확대

큐레이션 시장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동반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블로그,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콘텐츠 선택이 고민거리가 되는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콘텐츠 취향과 소비 유형을 고려해 콘텐츠를 골라주는 큐레이션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

대표적인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인 버즈피드, 관심이미지를 수집해 공유하는 핀터레스트 등이 인기를 얻고 있고, 최근에는 일상에서 접하는 선택의 고민을 대신하는 생활 밀착형 큐레이션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등 서비스 범위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인기있는 큐레이션 앱(APP)

| | | | | |
|---|---|---|---|---|
| <p>피카캐스트 (Pikicast)</p> <p>piki</p> <p>우주의 알은 지식. 피카캐스트에서는 주요 뉴스, 예능 핫 클립, 영화 그리고 맛집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추천한다.</p> | <p>마이레터 (MyLetter)</p> <p>M</p> <p>마이레터는 육아, 요리, 여행, 자기개발 등 대중들이 관심 있어하는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를 취향에 맞게 추천해준다.</p> | <p>왓차 (WATCHA)</p> <p>w</p> <p>영화를 보고 싶다. 근데 뭐 보지? 왓차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취향에 맞게 추천한다.</p> | <p>북맥 (bookmac)</p> <p>b</p> <p>책을 읽고는 싶는데 막상 무엇을 읽을지 막막하다면 북맥을 추천한다. 북맥에서는 이용자의 도서 취향을 분석해 추천한다.</p> | <p>쇼픽 (ShowPick)</p> <p>P</p> <p>쇼픽은 패션 전문가 그룹이 소비자에게 상황이나 취향에 맞는 패션스타일을 추천한다</p> |
|---|---|---|---|---|

국민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노후준비



노후소득 준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는데다 제도 자체의 복잡성으로 국민연금 상품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기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효율적인 국민연금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길어진 노후를 생산적이고 활동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과 함께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경제적 준비가 미흡할 경우 일상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따라서 노후 소득 확보는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노후소득 준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의무적 가입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는데다 제도 자체의 복잡성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상품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이 될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연금 왜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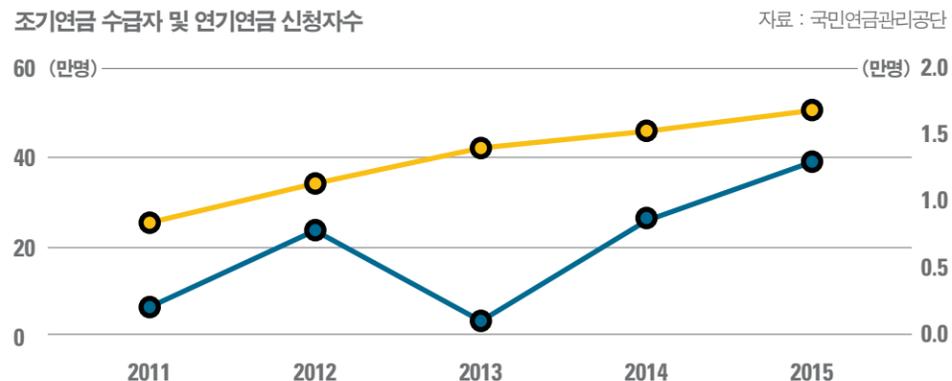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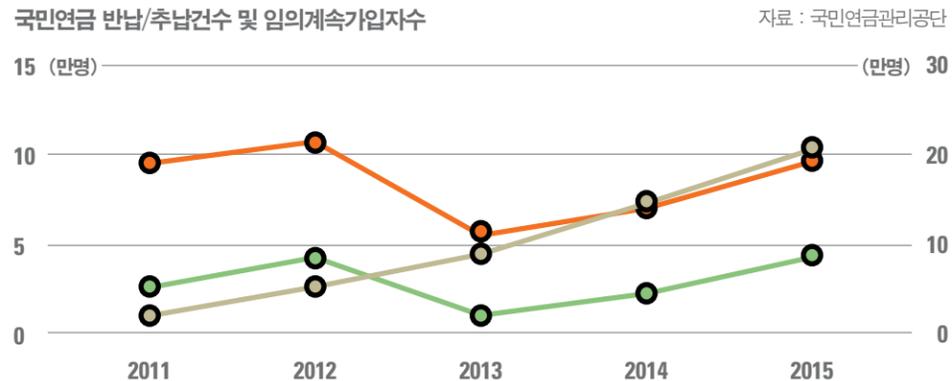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전업주부나 대학생 등과 같이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3월 기준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은 평균 88만 3,000원으로 결코 적지 않으며,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대신 부담한다는 점에서 가입과 동시에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연금은 수급개시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장수위험을 커버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상품이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금액을 산정해 주는 유일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은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하는데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이 오르는 구조로,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수령액이 훨씬 많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가입자의 부담 대비 혜택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후대비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효용성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액이 높을수록 많아져

노후대비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까.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따라서 평균 소득액에 기반을 둔 실제 국민연금 납부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가입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국민연금에서 가입기간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하며, 수급시점 전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이나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납부한 보험료 총 금액이 같다고 할 때 보험료를 단기간 많이 내는 것보다 매달 적은 보험료를 장기에 걸쳐서 내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지며,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 늘릴 수 있어

국민연금에서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반납이란 예전에 수령했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기금 안정화를 위해 매년 소득대체율이 0.5%씩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어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해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말하며,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한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자수는 2012년 8만8,57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21만9,111명에 달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조기연금 및 연기연금 제도 등을 활용한 연금 수급시기 조절

국민연금 급여 중 가장 대표적인 노령연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 연금을 정상적인 수급연령보다 미리 받거나 바로 받지 않고 일정기간 늦춰 받는 등 연금 수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경우 본인 선택에 의해 원칙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소득수준 이하일 경우 한해 본인 선택에 의해 노령연금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연금을 수령함에 따라 6%씩 연금액이 감액되어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경우 본인이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의 70% 수준밖에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 수령 여부의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 이상으로 살 수 있다면 조기에 받는 것보다는 정상 수급연령에 받는 것이 총 연금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라면 조기에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퇴직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조기연금을 활용해서라도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연금 수급을 늦추는 것이 노후대비를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제도로 연기연금이 존재한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수급연령이 된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연금 수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계획에 따라 1969년 이후 출생한 이들은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으므로 최대 70세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연금액 전액의 수급을 연기할 수도 있고, 희망자의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만을 선택해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추후 수령하는 연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즉,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씩 늘어나 만약 1년을 연기한다면 연간 7.2%가 가산되며, 5년을 연기한다면 연 36%가 가산되어 연금액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 연기연금 신청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864명, 2011년 2,031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2년 7,754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5년에는 1만2,47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2012년과 2015년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2012년 소득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데 이어 2015년 7월부터는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씩 늘어나 만약 1년을 연기한다면 연간 7.2%가 가산되며, 5년을 연기한다면 연 36%가 가산되어 연금액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반납건수
- 추납건수
- 임의계속 가입자수(우)

-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수
- 연기연금 신청자수 (우)

수급연령이 지났음에도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당분간은 연금이 아니더라도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추후 연금 수령액 증대를 위해 연기연금제도를 고려해볼만 하다. 특히,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감액될 수 있어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과의 상담을 통해 연기연금 신청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금 수급시기에 대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으로 귀결되며, 기대수명에 대한 주관적 판단뿐만 아니라 그 외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노년기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 또는 건강이 허락되거나 소득창출 활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조기연금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이 노후자산이 부족한 노후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정 계층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

국민연금에는 농어민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함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 제도가 존재한다. 우선 농어민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즉, 농어업인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신고소득 91만원 이하의 본인 보험료 50% 지원, 신고소득 91만원 초과는 월 40,950원 정액 지원)를 통해,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군복무, 실업 등과 관련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크레딧 제도도 존재한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사람에게 자녀수에 따라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실업 크레딧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고 이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최대한 많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후생활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노후설계 시 국민연금을 적극 반영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흐름 창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생각,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와 함께하면 당신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입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행복한 멤버십과 만나보세요.



HANA MEMBERS 하나멤버스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저축부터 보험 가입, 카드 사용,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쌓인 하나머니와 제휴사 포인트를 합산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금융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멤버스 회원이 되어 다양한 일상 속 행복을 누리보세요.

하나머니란?

연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하나멤버스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하나멤버스 가입 고객은 누구나 하나금융그룹금융 거래 및 일반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적립해 편리하게 사용한다!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머니

- 연금처럼 ATM출금도 자유롭게!
- 내 계좌로 입금도 안전하게!
- '보내요'와 '주세요'로 친구와 주고받기도 다정하게!
- 가맹점에서 바코드 결제로 간편하게!
- 부족하면 내 계좌에서 충전도 빠르게!
- 다른 포인트와 교환하여 한꺼번에!
- 교통카드 충전도 손쉽게!



Hana Money 1 Click

어디서든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몰라도)

그냥 결제만 하고
(하나머니를 사용한다는 말 없이)

Cashier가 일반 결제 처리만 하면 하나멤버스 앱이 Push로 알려주니까

'사용하기'만 클릭하면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Push 팝업에서 하나머니 '사용하기' 클릭!

* 하나머니 잔액 천원 이상 & 매출금액의 20%까지 하나머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하나멤버스에 가입하세요

모바일 [하나멤버스] 앱 다운로드 **step 1**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 **step 2** >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 완료! **step 3**

www.hanamembership.com

하나멤버스 를 검색해 보세요

Google play App Store

[주]KCB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사일 2015-광고-3078호(2015.09.24)

일상화된 전망치 하향조정

2011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일상화되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IMF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보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2011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이
일상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19일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2%에서 3.1%로 0.1%p 하향조정했다.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3.4%로 기존 전망치(3.5%)에 비해 0.1%p 낮춰 잡았다. IMF가 이처럼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직접적인 이유는 영국의 EU탈퇴, 즉 브렉시트(Brexit)의 여파가 올해와 내년까지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로 인해 무역·소비 등 거시경제적 측면은 물론, 규제·이민 등 정치적 환경에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경제에 대한 신뢰하락과 투자활동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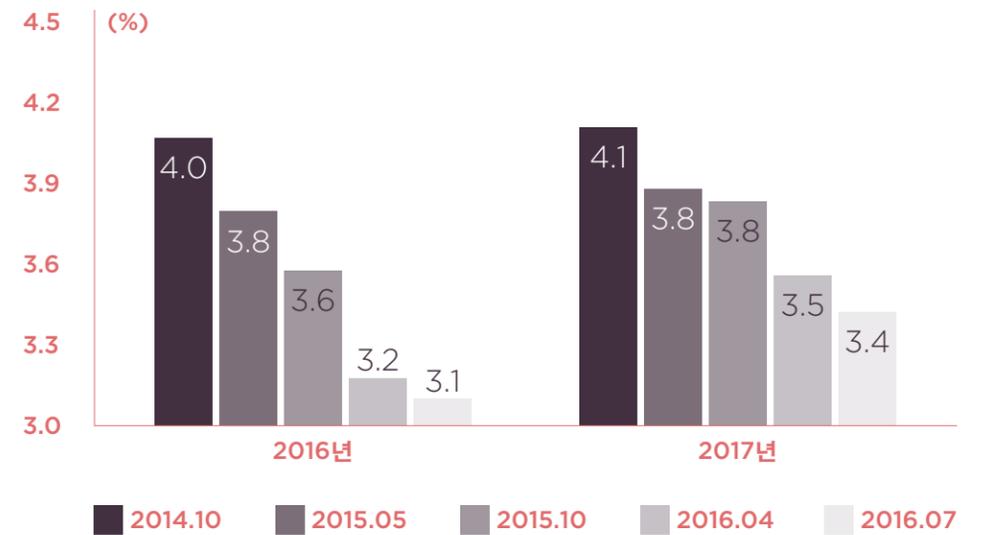


브렉시트라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지만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매우 익숙한 모습이다. 실제로 IMF는 2011년 4월에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7%로 전망한 이후 반년마다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망의 하향조정은 2016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된 2011년 이후 일상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전망이 반복적으로 틀릴 경우 이는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가 미래의 소비 및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물론 전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틀리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IMF의 최초 전망치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금융위기를 전후로 글로벌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과거 데이터에 의존한 적응적(adaptive)인 전망을 계속하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추이

자료 : IMF의 WEO



글로벌 교역 확대와
저금리 장기화로
2000년대 초중반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 구가

1980년 이후 1999년까지 20년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3%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평균 3.2%)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세계경제는 2000년부터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까지 연평균 4.5%의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이례적인 장기호황은 첫째,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글로벌 교역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신흥국 생산-선진국 소비의 관계가 공고화되면서 신흥국 투자와 선진국 소비가 활성화되고 둘째, 미(美) FR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9.11 사태의 후유증과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해서 저금리 정책을 상당기간 유지함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와 같은 유동성이 실물 및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요국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실제로 세계교역 성장률은 1980~1999년 평균 5.6%에서 2000~2007년 평균 7.3%로 높아졌으며, 2000년 대비 2007년 OECD 국가의 GDP 규모(PPP 적용, 명목)는 42.5% 증가하였으나 통화량(M3)은 64.4%나 증가했다.

글로벌 성장세 부진, 제조업 선진국 회귀, 무역장벽 등으로 글로벌 교역 증가율 둔화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성장을 견인했던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보호무역 증가, 중국 성장모델 전환,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글로벌 교역의 성장률도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실제로 글로벌 교역 증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글로벌 경제는 무역자유화 효과, 주요국 저금리 정책 등에 힘입어 2000~2007년 연평균 4.5%의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금융위기 이후(2008~2015) 유로존 재정부실 및 신용경색, 중국 구조조정 등으로 성장률이 3.2%로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수출입유발 효과가 큰 설비투자가 부진하면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었다.

둘째,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신흥국 생산-선진국 소비의 관계가 약화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임금격차 축소, 선진국 내 일자리 창출 필요성, R&D 등 비가격경쟁력 중요성 확대 등으로 인한 제조업 회귀(Reshoring)로 선진국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의 상품수입이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이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중인 주요국가

자료 : 언론종합

| 국가 | 정책 | 내용 |
|----|-----------------------|---------------------------------------|
| 미국 | 리쇼어링 | 해외이전 기업 유턴세 법인세 감면 등 파격혜택 제공 |
| 일본 | 아베노믹스 | 양적완화, 재정정책, 제조업 부활 목표한 산업구조 개혁 |
| 독일 |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 | 정보기술(IT)과 제조업 융합을 통한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
| 영국 | 포어사이트(Foresight) 프로젝트 | 2050년까지 글로벌 변화 트렌드를 기반으로 영국 제조업 변화 추진 |

...

첫째,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둘째,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신흥국 생산-선진국 소비의 관계가 약화되었다.

셋째, 보호무역이 확산되었다.

...

셋째, 보호무역이 확산되었다. 아시아 외환위기와 IT버블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무역구제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세 지연과 철강·화학 산업의 과잉설비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교역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하락과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원유 교역이 둔화되는 등 국제원자재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글로벌 교역 둔화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리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유동성 환경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유동성은 금융권에서만 맴돌 뿐 좀처럼 시중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리플레이션(reflation)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기둔화로 주요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실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美) FRB가 작년 12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출구전략'을 통해 점진적으로 유동성 축소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디레버리징 장기화, 신흥시장의 수출 및 제조업 성장 한계 등으로 저성장 기조(New Normal)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주요국은 친 성장 정책 기조를 강화하려 노력하지만, 각국의 정책대응 역량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주요국 국가채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확대 정책을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증발(helicopter money)과 같은 급진적인 정책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를 견인했던 신흥국의 사정도 좋지 못하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원자재가격 약세와 재정악화 등으로 신흥국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국가 리스크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자재에 대한 무역 및 재정 의존도가 높은 중남미와 중동/아프리카 신흥국은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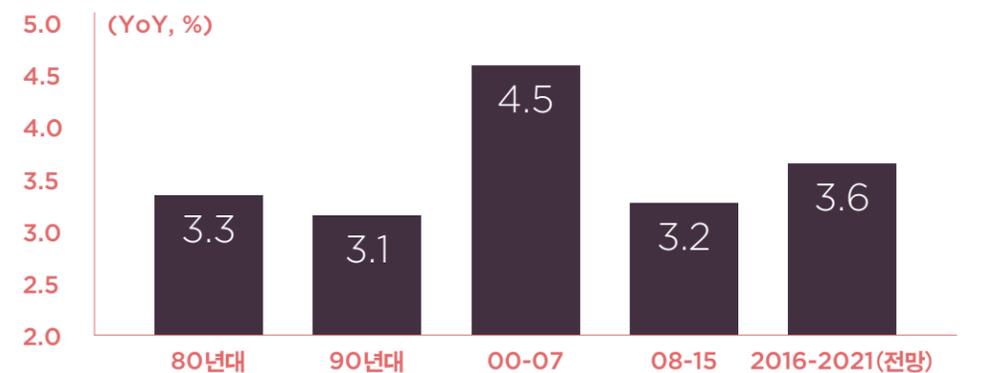
세계경제의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불확실한 전망보다 발표되는 데이터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

결론적으로 최근 세계경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던 2000년대 초중반은 물론, 1980년대 이후의 평균적인 성장률을 회복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하지만 IMF는 향후 6년(2016~2021년)간 세계경제가 연평균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전 20년 평균을 상회하는 고성장을 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경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된 듯하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전망을 할 경우 전망치에 상향편의(upward bias)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는 미래의 소비 및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세계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보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별 세계경제 성장률 비교

자료 : IMF의 WEO





8.25 가계부채 대책의 내용과 영향

정부는 지난 8월 25일 계속 늘어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는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관리, 서민·취약 계층 지원 강화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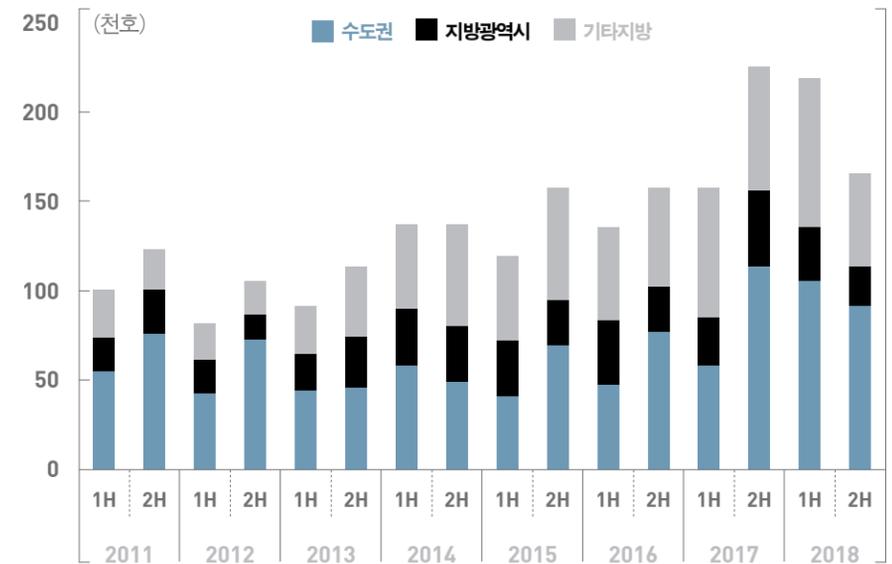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8.25일 정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

8.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함께 참여했고, 내용도 금융부터 부동산까지 폭 넓은 범위로 담았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집단대출 차주 소득심사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강도 대책이 제외되었고, 주택공급 조절을 비롯해 포함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소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 물량

자료 : 부동산114



주택공급 조절방안이 포함되었으나 단기적 효과는 미흡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공급 관리방안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LH공공택지 물량을 작년 12.9만호에서 올해 7.5만호로 줄이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대출보증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금융기관의 PF대출심사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의 주택공급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실효성은 크지 않다. 2014년 51.5만호였

던 주택인허가가 2015년 76.5만호, 올해 상반기 35.5만호로 이미 크게 늘었다. 또한 인허가 이후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을 조절할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 최근 해외건설과 토목건설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올해 상반기까지의 인허가 물량만 감안해도 2~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8년까지는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 관리강화로
투자수요 위축은 불가피

이번 대책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권의 중도금대출에 대해 공사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1인당 보증건수도 공사별로 2건에서 통합 2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중도금대출을 취급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최근 중도금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비은행권 규제방안은 이번에 누락되었으나 집단대출 시장이 일정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지방의 경우 올해 주택거래 중 30% 이상(수도권은 24%)을 분양권거래가 차지할 만큼 투자수요 비중이 높아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 또한 투자수요 위축으로 분양성이 악화될 수 있다.

서울시 재건축,
수도권 인기지역의 수혜 예상

이번 대책으로 지방시장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서울 재건축과 수도권 인기지역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8.24일 발표된 강남 개포주공 3단지(디에이치아너힐즈)의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을 넘었다. 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집중되었다. 이번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해당침 금지 등 분양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안이 제외된 것도 호재다. 공급과잉 우려가 적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청약 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 Knowhow
주거래 우대 통장



국내은행 중 자산규모 1위(2019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 1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중 17개 항목만 이체해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 2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예금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본업감시인 심사결과 2015-광고-3054(2015.09.30)



외모가꾸 에너지 더하는 스페인 시니어들

스페인 시니어들의 꾸준한 외모 가꾸기가 화제다. 스페인성형협회에 따르면 스페인 시니어들 중에서 최근 5년 사이 80대 이상 여성의 수술 상담이 100%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한 외모 가꾸기로 삶의 에너지를 더하고 있는 스페인 시니어의 삶을 들여다본다.

사교적인 스페인 시니어들

스페인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18.1%인 고령사회다. 특히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34%가 많다. 스페인 통계청은 2061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600만명, 전체 인구의 38.7%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전망하고 있다.

보통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로 정의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스페인은 2021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6%에 달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랑과 정열’로 대표되는 스페인. 스페인의 시니어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 스페인의 국민들은 물론 노인들도 비교적 사교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주로 대인과의 접촉을 좋아하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다른 유럽국가에 대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 노년층은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편이다. 이러한 연금 수령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바탕으로 고가 화장품 사기를 꺼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노년층의 피부미용 시술 상담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스페인 성형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80대 이상 여성의 수술 상담이 100%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스페인 시니어들은 젊을 때부터 꾸준한 외모 가꾸기를 시작해 노년이 되어서도 철저한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편이다. 유럽국가중에서도 스페인 시니어들은 오래살기로 유명하다. 바로 이러한 원활한 사회적 관계로 인해 피어내는 ‘사랑과 정열’ 덕분일까. 풍성한 사회적 관계 덕택에 스페인 시니어들은 에너지가 넘친다. 즐거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스스로를 위해 뭔가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간다. 특히 1980년 이후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스페인은 EU국가 중 남자평균연령이 가장 높고 여성은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스페인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은 특유의 낙천성과 원활하고 풍성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민간이 나서서 스페인 노인복지

이러한 화려한 스페인 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데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한몫한다.

스페인 노인복지시설에는 독특한 운동요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젊은 트레이너들이 고령자 10~15명을 모아 한 시간 동안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로 참여하는 노인들의 몸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이것은 바로 ‘시엘 블뢰(Siel Bleu)’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97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스포츠과학을 전공한 청년 두 명이 만들었다. 이들은 같은 이름의 비영리 협회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스페인에도 전해지면서 노인들을 위한 독특한 운동 요법으로 스페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트레이너들은 양로원 등 복지시설이나 노년층이 많이 사는 지역을 방문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덕분에 실제로 시엘 블뢰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낙상으로 다치는 비율이 35%가량 낮아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시엘 블뢰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만든 사례”라며 “스페인에서는 이처럼 생활과 밀접한 노인 이슈에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시인을 꿈꾼다면

살다보면 한번쯤 시를 쓰고 싶은 순간이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가,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깊은 감동을 느꼈을 때가 그렇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싶지만 막상 펜을 집어 들면 막막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시인을 꿈꾼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수적이다.

유교 경전 중 '대학'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심부재언 시이불견 청이불문 식이부지기미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不知其味)' 즉,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그 맛을 모른다는 뜻이다. 같은 것을 보고도 더 깊게, 그리고 다르게 보기 위해서는 흘려서 보지 말고 깊이 보고 들어야 한다. 이러한 시선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시를 쓸 수 있는 자세다.

둘째, 시 창작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통해 기본을 배워보자.

시인을 꿈꾸는 사람을 위한 책들이 많이 발간되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가 있는 시 창작수업' '자연과 친구되는 시쓰기' '시 창작을 위한 레시피' '시 창작 강의노트' '나는 매번 시 쓰기가 재미있다' 등과 같은 책을 참고해보자.

셋째, 좀 더 적극적으로 시 창작을 하고 싶다면 모임에 참여해 직접 시를 많이 써보고 스승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시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시인학교나 문예교실 등에서 시 창작 강의가 많이 개설돼 있다. 이런 모임에 나가면 다독뿐 아니라 다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강사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므로 시인을 꿈꾼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자.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디지털대학의 문예창작과 등을 전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을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시집 10선

1.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 류시화
2. 서울 시 | 하상욱
3.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잠언시집) | 류시화
4.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도종환
5. 서울 시2 | 하상욱
6.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 신현림
7. 약해지지 마 | 시바타 도오
8. 순간의 꽃 | 고은
9. 눈사람 여관 | 이병률
10.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 류시화

〈자료: 교보문고 '최근 5년 간 가을철(9~11월) 시집 판매량'(2015)〉



Trustee & Global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행복이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카드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0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